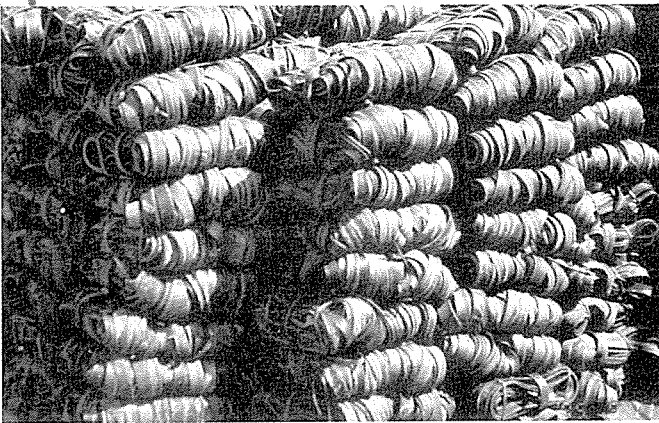


국내 폐타이어 재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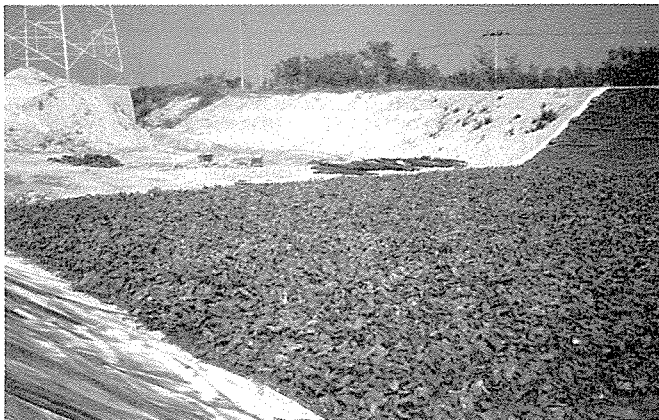
〈사진 1〉 폐타이어로 만든 가구부품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쿠션효과가 뛰어난 쇼파나 의자용 바를 만들어 폐기물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쇼파나 의자용 바는 전국의 가구공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 2〉 등산로에 폐타이어 재활용

제주도 한라산 등산로에 깔아놓은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등산로 깔판은 보행자들의 미끄럼 방지와 피로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토사 유실과 산림훼손 방지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주요 등산로 등에 이용확대가 기대된다.



〈사진 3〉 쓰레기매립장용 폐타이어

폐타이어를 조각(박편)으로 만들어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폐타이어는 유독성 유기물질을 흡착하여 폐타이어에 기생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정화할 수 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95년도에 32만여개의 폐타이어를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이용한 바 있다.

(朴錦準/大韓타이어工業協會 環境對策課長)